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6. 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獨, 유럽의회 선거 前 정치인 폭행 사건 발생

- 6.2 언론은 유럽의회 선거 일주일 前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州 유세장에서 불상의 용의자가 기독교민주당(CDU) 소속 「로데리히 키제베터」(60) 연방하원 의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밀치는 정치인 테러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
 - ※ 독일에서는 지난달부터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으며, 여·야당을 가리지 않고 확산

○ 러시아, 파리올림픽 관련 테러 등 공포 조장 의심

- 6.4 언론은 러시아가 중립국 자격으로만 7월 파리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, 올림픽 겨냥 테러 등 공포를 조장하는 허위영상 유포에 앞장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일각에서는 올림픽이 임박해 오면, 가짜뉴스 등이 더욱 활개칠 것이라고 부언

미주

○ 美 재무부, NFT 겨냥 북한의 범죄 가능성 우려

- 5.30 美 재무부는 'NFT* 취약점 분석·평가 보고서'에서 테러단체의 자금세탁·테러자금 조달을 위한 NFT 악용가능성을 경고, 특히 NFT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(탈취·사기) 가능성 우려에 주의를 당부
 - * NFT(Non-fungible token)는 대체불가토큰을 뜻하며,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

○ 美 MTAC, 파리올림픽 기간 러시아 사이버 공격 지속 전망

- 6.3 美 MTAC은 올림픽 기간 러시아 악성 단체가 AI를 활용해 △IOC 명예훼손 △폭력사태 발생 공포감 조성 등 온라인상 거짓·악성정보 확산형식의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
 - ※ 同 센터는 러시아 단체가 유로뉴스, 프랑스24등 유명매체를 사칭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, 자동화된 SNS 계정으로 동일한 허위정보를 유포할 수도 있다고 부언

중 동

○ 이란 외무부, 스웨덴 대사 초치

- 6.2 이란 외무부는 스웨덴 대사를 초치, '이란이 스웨덴 범죄 조직원을 모집해 공격을 모의했다는 스웨덴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'이란과 스웨덴 사이를 해치려는 특정세력의 존재를 보여준다고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지 감시할 것을 촉구
- ※ 지난달 30일 스웨덴 정보기관은 "이란이 스웨덴에 있는 반이란 세력 등을 공격하기 위해 범죄 조직원을 모집, 이스라엘 관련 세력을 공격대상으로 삼고있다"라고 주장

아 · 태평양

○ 韓 외교부, 튀르키예서 '중동지역 해외 안전 영사 회의' 개최

- 5.30 언론은 한국 외교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최근 중동과 인근지역의 분쟁과 관련해 국민 보호 대책과 영사 조력 강화를 위해 '중동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 회의'를 개최했다고 보도
- ※ 同 회의에서 외교당국은 각국 영사들에게 "현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"고 당부

○ 韓-아프리카, 정상회의에서 협력 강화 등 공동선언

- 6.4 언론은 韓-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를 위한 △대테러 노력 △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 필요성 강조 △인도적 지원 등 25개 항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고 보도
- ※ 아울러, 韓-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교역 및 투자, 인프라, 과학기술 등 미래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

아프리카

○ 美軍,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'ISIS' 대원 3명 사살

- 6.2 언론은 美 아프리카 사령부가 소말리아 바리주 보사소에서 남동쪽으로 81km 떨어진 외딴 사막지역 마을에서 활동하는 ISIS 대원 3명을 공습을 통해 사살했다고 보도
- ※ ISIS는 미국 등 연합군에 의해 이라크('17년 12월)와 시리아('19년 3월)에서 쫓겨났지만 ISS(소말리아 지부) 등은 아프리카에서 지속 활동

영국 런던 브리지 테러

- '17.6.3 영국 런던에서 차량 돌진 및 칼부림 테러가 발생, 8명 사망 48명이 부상
 - ※ '17.5.27 테러 단계 조정(심각→경계) 후 7일만에 발생
 - 이들은 차량과 칼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, 가짜 폭탄조끼를 착용하여 경찰·구조대 등에게 혼란·위협을 가중
 - 현장에서 사망한 테러범 3명중 「카람 쇼타즈 부타」(27세)는 파키스탄 출생 영국 시민권자로 '15년에 MI5에 조사된 바 있는 인물이며, 「유세프 자그바」(22세)는 이탈리아 안보 기관의 모니터링 대상 인물로 확인
 - 경찰이 사건 발생 8분만에 테러범을 사살하는 등 신속·결단력 있는 대응에도 불구하고, 테러범이 모니터링 대상자로 밝혀지면서 테러에 대한 대응·예방 전략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된 사건
- ⇒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ISIS 등의 서방 테러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우리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 동향 주시 필요

테러 상식

< 차량 돌진(Vehicle Attack) 테러 >

- (정의) 차량 또는 차량에 폭탄을 탑재한 채로 시설이나 사람에게 돌진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살상하는 테러 유형
- (특징) △특별한 기술 불필요, △도구(차량)를 손쉽게 획득, △목표물 접근이 용이하고 직 접피해 유발, △흉기난동 등 복합테러 가능
- (사례) △'16.7.14 佛 니스 차량테러(사망 86, 부상 436), △'16.12.20 獨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차량테러(사망 12, 부상 56), △'17.11.1 美 뉴욕 맨하튼 차량 테러(사망 8, 부상 12), △'18.4.24 캐나다 토론토 차량테러(사망 2, 부상 10)
- (대책) △볼라드·로드블록 등 장애물 설치, △트럭에 자동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, △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진입로 설계 등